

세기의 대결 2일 앞으로 다가와

메이웨더vs맥그리거... 전문가들, 메이웨더 승리 전망

무패의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40·미국)와 UFC의 최강자 코너 맥그리거(29·아일랜드)가 맞붙는 세기의 대결이 2일 앞으로 다가왔다.

메이웨더와 맥그리거는 오는 27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모바일 아레나에서 대결한다.

두 선수는 모두 서로의 승리를 자신한다.

은퇴를 반복하고 돌아온 메이웨더는 50번째 제물로 맥그리거를 선택했다.

맥그리거 역시 '초전박살'을 예고했다. 힘과 투지로 상대를 제압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메이웨더는 49전 전승을 기록한 레전드 복사다.

지난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에서 복싱 페더급 동메달을 획득한 그는 프로로 전향해 5체급을 석권했다.

아웃복서답게 회피 능력이 뛰어나고, 화려한 복싱 기술을 가졌다.

반면, 맥그리거는 2015년 12월 UFC 페더급 챔피언과 지난해 11월 UFC 라이트급을 석권했다.

화끈한 경기 스타일의 타격가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다. 전적은 21승 3패다.

세기의 대결인 만큼 두 선수 모두 1억 달러가 넘는 대진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전문가들은 메이웨더의 승리를 전망하고 있다.

벌써 40대에 접어든 메이웨더지만, 여전히 빠르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 12라운드로 벌어지는 복싱 경기에서 종합격투기 선수가 복싱을 이기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복싱을 기반으로 한 격투기 선수들이 무명의 복서들에게 패한 예도 찾아볼 수가 있다.

발을 쓰지 못하는 맥그리거가



무패의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40·미국)(사진왼쪽)와 UFC의 최강자 코너 맥그리거(29·아일랜드)

메이웨더의 절대방어를 뚫고 몸쪽을 파고들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거리를 좁히는 데 한계를 보일 수도 있다. 무리한 접근으로 편지를 허용할 수도 있다.

맥그리거는 메이웨더의 아웃복싱을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복유의 인파이트 스타일로 상대를 링에 눕혔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자신은 젊고, 파워에서도 월등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뉴시스

WC최종예선 이란, 한국전 치를 국내파 11명 발표

한국전에 나설 이란 국내파 선수들의 면면이 공개됐다.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은 2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종엔트리에 포함된 11명의 선수를 발표했다.

11명은 모두 이란 자국리그 소속이다. 이들은 이란 수도인 테헤란에 훈련 캠프를 차려 손발을 맞추고 있다.

국내파 명단은 골키퍼 2명, 수비수 5명, 미드필더 1명, 포워드 3명으로 꾸려졌다.

공격진에는 지난해 10월 이란이 한

국전 승리를 거뒀을 당시 풀타임을 뒀던 바히드 아미리도 교체로 투입됐던 메흐디 타레미도 포함됐다.

만 23세가 된 2015년 처음 대표팀의 부름을 받은 타레미는 지금까지 A매치 19경기에 나서 10골을 기록했다.

지난 6월 우즈베키스탄전에서는 쉐기골로 2-0 승리를 이끌며 이란이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하는데 기여했다.

국내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리는 해외파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10월 한국전 결승골의 주인공이자 대표팀 에이스인 사르다르 아즈문(루빈 카잔)이 경고 누적으로 한국전에 나설 수 없는 가운데 독일 U-21 대표 출신인 아쉬칸 데자간 등의 승선 가능성이 잠겨지고 있다.

이란 선수단은 오는 28일 결전자인 한국에 입성해 일찌감치 탐금장에 돌입한다.

한국-이란전은 31일 오후 9시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김민근기자

방탄소년단, 7개월만에 새앨범 발표

18일 새 미니앨범 '러브 유어셀프' 승 '하'

대세 그룹 '방탄소년단'이 7개월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한다.

24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내달 18일 새 미니 앨범 '러브 유어셀프'를 공개한다.

지난 2월 발매한 '윙스(WINGS)'의 전: 유 네버 워크 얼론(You Never Walk Alone)' 이후 처음이다.

방탄소년단이 내년까지 선보이는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의 첫 번째 앨범이다.

시향에 빠진 풋풋한 청춘의 모습을 담았다.

4개의 버전으로 출시되는 이번 앨범은 랩몬스터가 프로듀싱한 히든 트랙까지 포함됐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포스트와 하이라이트 필름 차례로 공개하며,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의 전체 즐거움을 전달하는 사전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월 '윙스 외전: 유 네버 워크 얼론'으로 한국 가수 최초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인 '빌보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내달 18일 새 미니 앨범 '러브 유어셀프'를 공개한다.

200'에 4개 앨범 연속 진입 기록을 세웠다. 타이틀곡 '봄날'로 미국 빌보드 '버블링 언더 핫 100' 차트 15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전 세계 17개 도시 32회 '윙스 투어'를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K팝 그룹 최초로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내달 2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서태지 데뷔 25주년 기념 공연 '뜻밖의 무브:사운드트랙 vol.2 서태지 25'에 출연한다. 이날 출연하는 후배 가수들 중 유일하게 서태지와 합동 무대를 펼친다.

/뉴시스

오승환, 아웃카운트 하나 못잡고 강판...2안타 맞고 1실점

빅리그 데뷔 후 129경기 만에 처음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아웃카운트 한 개도 잡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오승환은 24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와 경기에서 팀이 5-0으로 앞선 8회 등판, 연속 두 개의 안타를 맞고 1실점한 뒤 강판됐다.

첫 타자 맷 시저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한 뒤 마누엘 마고에게 우중간을 완전히 가르는 3루타를 맞고 점수를 내줬다.

그러자 마이크 매시니 감독이 직접 마운드에 올라 오승환으로부터 공을 건네받았고, 좌완 타일러 라이언스를 호출했다.

결국 오승환은 아웃카운트 하나도 잡지 못하고 두 타자만을 상대한 뒤 마운드를 내려왔다.

지난해 빅리그에 데뷔해 이날 경기까지 129경기에 등판한 오승환이 아웃카운트 한 개도 잡지 못하고 강판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반기 팀의 뒷문을 책임졌던 트레버 로젠탈이 팔꿈치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면서 오승환의 마무리 복귀가 예상됐다.

지난 19일 피츠버그전에서 41일 만에 세이브를 추가하는 등 로젠탈의 빈자리를 메울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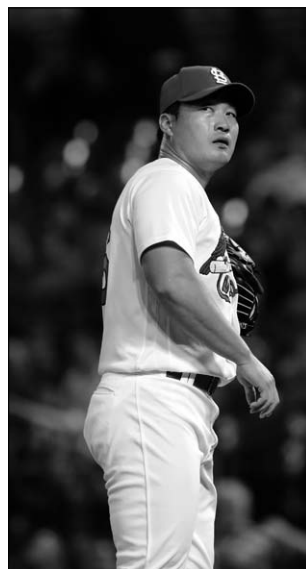
앞선 3경기에서 팀이 연패에 빠지며 등판 기회를 얻지 못했던 오승환은 구위 점검 차원에서 등판했지만 실망스러운 투구로 기대를 저버렸다.

두 타자를 상대하는 동안 투구수도 11개에 불과했고, 4점이나 앞선 상황에서 강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행히 오승환에 이어 등판한 라이언스가 추가 실점하지 않았고, 이후 1점씩을 주고받으며 6-2로 승리했다.

오승환은 시즌 성적은 1승 5패 19세 이브를 유지했고, 평균자책점은 3.69에서 3.86으로 높아졌다.

/김민근기자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아웃카운트 한 개도 잡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구독·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